

신안군 해조류 이식 바다 생태계 복원

3월 다이아몬드제도 해역 이식 다시마 3만2245m 쭉쭉 성장 바다 살려 낚시 거점 집중 육성



다시마를 이식한 신안 해역.

신안군이 해조류 이식으로 바다 사막화 극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안군은 갯녹음 확산 등으로 사라진 연안의 해조류 복원을 위해 이식한 다시마가 성공적으로 성장해 바다 사막화 극복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올해 3월 바다낚시 거점 해역에 다시마 3만2245m를 이식했다.

사전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다시마 품종을 해역 환경에 맞춰 조도가 확보되는 표층 연승식으로 시설해 이식 효과를 극대화했다.

이식한 다시마는 현재 1m 이상 성장해 포자가 맨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10월까지 포자 발아(방출) 후 해당 어촌계의 소득원 창출 차원에서 직접 다시마를 채취, 판매하도록 하고 사후 영양조사 등으로 인근 해역 양면에 포자 부착 여부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해조류 이식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해역은 다이아몬드제도(자은-암태-안좌-팔금-장산-신의-하의-도초-비금도 등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9

개의 섬)의 중심지다.

2022년부터 5년간 90억원을 투입해 어초 투하, 수산 종자 방류 등을 하는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인접 해역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신안군은 지금까지 갯녹음 예방과 연안 생태계 복원을 위해 비금, 암태, 안좌해역에 곱 피 7만

4570m, 다시마 3만6050m, 흑산해역에 다시마 3만m 이식을 완료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지속적인 해조류 이식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동참은 물론 향후 다이아몬드제도 해역을 바다 낚시산업의 거점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저탄소 인증면적 589ha 추가 확보 776.8ha...전남 1위



친환경 저탄소 인증 심사.

영암군의 친환경 저탄소 인증면적이 전남 지역 1위를 달성했다.

영암군은 지난달 남주농협과 서영암농협 등 2개 소 589ha의 벼 생산단지가 친환경 저탄소 인증면적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가 인증으로 영암군의 친환경 저탄소 인증면적은 모두 776.8ha로 늘어나면서 전남도내 전체면적 1659ha의 47% 규모다. 새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 유기농 벼 생산단지는 남주농협의 227농가 416ha, 서영암농협의 112농가 173ha다.

영암군은 민선 8기 들어 기후위기 대응과 저탄소 사회 실현을 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진행해왔다.

농업분야에서는 생산과정 탄소배출 줄이기, 지속가능 농업 환경 조성 등을 목표로 친환경 저탄소 농업 확산에 나섰으며, 이번 인증면적 확대도 전남 1위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영암군은 지역 농업인과 함께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호가 양립하는 미래 농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이번 성과는 영암군이 꾸준

히 친환경 저탄소 인증면적을 늘린 노력의 결과 "라면서" 전남 최고의 친환경 농업 지역으로, 영암군 농특산품을 생각할 때 건강과 친환경 저탄소를 함께 떠올리도록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해남군, 11월까지 땅끝탑 진출입로 통제 제한

해남군이 오는 9월 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땅끝탑 진출입로 통행을 제한한다.

땅끝꿈길랜드 무장애 데크로드 조성과 산책로

정비 공사로 출입 통제를 한다.

이 기간 땅끝탑과 스카이워크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전망대 쪽 데크를 이용해 왕래할 수

있다.

땅끝모노레일 탑승구에서 시작되는 걷기길은 이용할 수 없지만, 추석 연휴기간 9월 14일부터 5일간은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통행로를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진도군, 청춘마이크 사업 기간 '진도삼락마켓'

10월까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진도군이 8월부터 10월까지 매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청춘마이크' 전라-제주 권 공연 개최에 발맞춰 '진도삼락마켓'을 진도를 철마광장 일원에서 동시에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진도삼락마켓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진도의 영커사업인 소리, 서화, 흥주 등 '진도삼락' 홍보를 위해 진도군과 전남권 지역 가치 창출가(로컬 크리에이터)들이 함께하는 첫 행사다.

진도삼락의 고유한 의미를 재해석한 다양한 예술 체험과 미식, 생활 양식(라이프 스타일) 상품 등을 판매한다.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중 하나인 '청춘마이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 문화진흥원이 주관하여 지역과 일선에서 누리는 청년 예술가 거리공연이다.

청춘마이크 본 공연은 28일 오후 7시부터 진도군청 앞 철마광장에서 선보인다. 새활용(업사이클) 협회 단체인 '플라스틱 코르셋'과 전통무용 청년 예술단체 '바오 무용단'과 함께 이야기꾼으로 배우 김호준이 참여한다.

진도군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진도군민이 향유해온 소리, 서화, 흥주 등 '진도삼락'을 진도의 청년세대와 관광객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행사를 동시에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강철수 목포한국병원장, 복지재단에 성금

목포시는 목포한국병원 강철수 원장이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의 목포복지재단에 기탁했다고 27일 밝혔다.

지 총 6100만원의 성금을 목포복지재단에 기탁했다.

강 원장은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자 기탁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시 복지재단은 "강 원장의 따뜻한 마음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등 지금까지

영광군, '양파 육묘' 선착순 신청 접수

농가당 50판...1판 6000원 공급

영광군이 오는 29일까지 양파 육묘 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양파 육묘신청은 4500판(182만주) 내에서 선착순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농가별 50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농업기술센터 및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직접 방문해 육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파 육묘 품종으로는 농가 선호도가 높으며 수량성과 저장성이 우수한 조생종인 조생스타, 로얄

패스트와 중만생종인 다카이, 골든벨, 킹콩, 하하, 초이스, 홍보석(적양파), 리치홍(적양파) 품종이다. 양파모는 10월 마지막주에 분양될 예정이며 1판(406공)당 6000원에 공급한다.

신청 농가는 소농 및 고령농가 위주로 하여 가능한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하고, 양파 재배 농가의 육묘 관리 및 경영상 어려움 해소에 주력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자원연구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영광=김창현 기자 kcw@kwangju.co.kr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